

## 간협,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 결실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2권 발간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시리즈 제2권이 발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역사뿌리 찾기사업의 결실 중 하나로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1권(1886~1911)을 2011년 10월 25일 발간한 데 이어 제2권을 2017년 5월 15일 펴냈다.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2권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일제강점기 첫 10년인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이다.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1910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이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만세시위에 참여한 한국인 간호사들이 투옥되고 재판 받는 1919년 12월까지의 간호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제1부 동양어자료(일본어, 국·한문, 한글)와 제2부 영문자료로 나눠 편집했다. 원문과 한글 번역문을 실었다. 총 752쪽 분량이다.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리던 대로 간호부를 주로 사용 하되 간호원을 혼용했다.

제1부 동양어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1장 조선총독부 관보 =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부령, 고시, 조사보고서, 기사 가운데 간호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 실었다. 1910년대 간호 정책과 법령을 알기 위해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들이다.

△2장 일본 육군 조사보고서 = 일본 육군 조사보고서 가운데 1911년 북간도지역 시찰 보고서를 실었다.

△3장 매일신보 = 1910년대 한국 사회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한문 신문인 ‘매일신보’ 기사 중 간호 관련 자료를 실었다. 정부의 규칙과 시책 선전, 총독부의원과 도지해의원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과정 소개 및 견습생 모집 시험 안내 등의 글이 대부분이다.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2권은 일제강점기 첫 10년인 1910년부터 1919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 일제강점기 1910~1919년 간호역사 다뤄

### 조선총독부 관보 등 필수 참고자료 수록

### 매일신보 기사, 독립운동 간호사 자료 등 실려

△4장 기록신보 = ‘기록신보’에 실린 1916년 동대문부인병원 앤더슨 간호원장의 전별회 기사이다.

△5장 조선급만주 = 일본어 월간지 ‘조선급만주’에 게재된 1913년과 1918년 기사 두 편을 발굴 번역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상업조합 형태의 간호부회에 대한 내용과 실태를 묘사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6장 삼일운동 관련 자료 = 3:1 독립운동 관련 세 가지 종류의 자료가 실렸다. 첫째, 미국 신문과 잡지에서 한국 간호부를 언급한 기사들이다. 둘째, 원산구세병원 탁마리아 간호부에 대한 경성지방병원 관결문과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박덕혜 등에 대한 관결문이다. 셋째, 서대문감옥 인물카드 중 3명의 간

호부에 대한 신상카드를 편집해 넣었다.

제2부 영문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1장에는 20명의 선교사 간호부와 의사들의 편지, 메모, 잡지 기고문 등을 수집해 정리했다. 2장은 한국과 미국에서 출판된 영문 간호잡지와 선교잡지에 실린 자료들이다. 3장은 미국 북간도회 여자해외선교부 한국연회 연례보고서 중 병원과 간호 관련 부분이다. 4장은 재선 서양인졸업간호부회 연례회의록이다. 5장은 삼일독립운동 관련 선교사 기사이다.

부록으로 선교사 간호원 명단, 간호부·조산부 양성학교 도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간호부양성소 일람, 지해의원 명부를 실었다. (2면에 계속)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간호사·간호대학생 등 ‘명찰 착용’ 의무화

### 환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 알 수 있게

### 개정된 의료법에 명찰 착용 의무화 명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명찰 착용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고시가 5월 11일자로 발령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개월은 계도기간이다.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당시 신경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의료법(제4조제5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학·치과 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

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단,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제2조제2)에서는 명찰의 표시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명찰의 표시내용, 표시방법, 제작방법, 규격·색상 등 세부사항은 새로 제정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예 : 간호사 홍길동) 여기에 추가로 소속부서명이나 직위·직급 등을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예 :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2017 국제간호협회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ICN Congress & CNR 2017)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

### 2017 ICN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

〈ICN Congress & CNR 2017〉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

2017 국제간호협회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ICN Congress & CNR 2017)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ICN 대표자회의는 5월 25~27일 열린다. 앞으로 4년간 ICN을 이끌어 갈 새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한다.

세계 간호사들이 모여 교류하는 학술대회는 ‘간호사, 변혁적 돌봄의 선두에 서다(Nurses at the forefront transforming care)’ 주제로 5월 27일~6월 1일 열린다.

한국 대표단으로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등이 참석한다. 간호대학 교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회식식은 5월 27일 오후 6시(현지 시각) 팔라우 산 조르디 경기장에서 열린다. 크리스찬 라이만산, 김도임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 상, 건강과 인권상 등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에서 간호사들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플러너리 세션, 메인 세션, 컨퍼런스 세션, 심포지엄, 워크숍, 연구논문 포스터 발표 등이 진행된다.

폐회식은 5월 31일 오후 5시30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어 6월 1일에는 바르셀로나 보건 의료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명찰은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착용하면 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격리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 및 명찰 고시의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서 “명찰 고시 시행으로 환자 안전이 보장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명찰 표시내용(예시)

- 간호사 홍길동
- 간호대학생 홍길동

전문적인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예 : 내과 전문의 홍길동)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의과대학생 등은 ‘학생’이라는 명칭과 함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예 : 간호대학생 홍길동) 명찰에 기재되는 사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숫자나 영문

### 2017년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재공고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제	분, 위, 코의 건강문제와 간호	혈액·조혈기계의 건강문제와 간호
간, 담도, 췌장의 내·외과적 치료와 간호	신경계 환자간호II- 특수질환 중심	
법과 간호	환자안전관리	
임상사례별 응급환자 간호	감염병 관리와 간호	
정신건강문제와 간호	여성 건강문제와 간호	
임신, 출산 및 신생아 간호관리	근거기반간호실무- 초급	

개발비 : 8시간 기준 3,000만원(VAT 포함)  
※ 주제별 단일 응모팀 접수 시 해당 팀은 유찰 처리함

- 신청마감 : 2017년 7월 5일(수), 이메일 도착분(서명날인 기재)
- 제출처 : hayang@koreanurse.or.kr(02-2206-1914)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 참고

## “133년 역사의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할 능력 있는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국내 최초 JCI 재인증



국가고객 만족도 1위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



글로벌 경영대상



【세브란스병원(신촌)】



【강남세브란스병원】

### 신규 간호사 모집

#### 1. 모집내용

구 분	연세대학교 의료원[세브란스병원(신촌)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통합채용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자격 : 2018년 2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li> <li>영어(제2외국어 포함)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li> <li>취업보호대상자(국가 보호대상자, 장애인 등)는 관련법에 따라 우대</li> <li>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자격사항에 필히 기재</li> <li>남자지원자의 경우, 미필자도 지원가능</li> </ul>
채용인원	000명
온라인 입사지원 (Homepag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yuhs.or.kr) 접속</li> <li>채용정보 게시판의 “2018년도 신규간호사 모집안내” 선택</li> <li>입사지원서 작성(지원 시 희망근무지 선택 필요)</li> </ol> ※ 희망근무지 : 1. 세브란스병원(신촌) / 2. 강남세브란스병원 / 3. 모두 가능 (최종 합격 후 배치 시, 희망근무지 우선 고려 예정)
접수기간	2017년 5월 19일(금) 09:00~6월 4일(일) 24:00 까지
구비서류 (면접시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학 후~마지막 학기(4년제 : 3학년 2학기, 3년제 : 2학년 2학기)까지의 학점 / 석차(누적 평균값) 기입 필요)</li> <li>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1부</li> <li>주민등록초본 ..... 1부 (남자의 경우 군 경력사항 기재 필요)</li> <li>기타 관련 자격증, 여학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1부</li> </ol>
주소 및 문의처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료원 종합관 5층 인사팀 ☎ Insa_1@yuhs.ac ☎ 02-2228-1286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1차면접전형 - 2차면접전형 - 신체검사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7년 6월 중순 이후

4. 기 타

가. 합격자 발표 및 각 전형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yuhs.or.kr)에 게시됩니다.  
나. 전형방법 및 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